

열왕기상 1. '솔로몬'의 왕위 계승 (왕상 1:1-53)

들어가기

열왕기상 1 장은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시대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당시 유력한 왕위 계승자였던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않고,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는지를 소개합니다. 당시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전에 계시하신 대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역사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이스라엘의 왕조는 결코 인간적인 힘이나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1. '다윗'이 늙고 쇠약해지자 그의 신복들은 젊은 여인으로 '다윗'을 수종 들게 하였습니다. (1-4 절)

1) 1 절 주목: 저자는 왜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고 쇠약해졌다는 사실을 굳이 소개했을까?

- 참고로 당시 '다윗'의 나이는 약 70 세로 추정됨.
 - '다윗'은 헤브론에서 30 세에 유대의 왕이 되어 7 년 반을 다스린 후, 예루살렘에서 약 33 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음. (삼하 5:4, 왕상 2:11, etc.)
- 그런데 특별히 저자가 '다윗'의 건강 상태를 기록한 이유에 대한 학자들의 두 가지 견해
 - ①. '다윗'의 건강상태를 기록함으로써 당시 그가 나라를 잘 돌볼 수 없었고,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 ②. 또한 왜 '솔로몬'이 갑작스럽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2) 이때 신하들은 '다윗'을 위해 젊은 처녀 하나를 선택해 왕을 모시게 하였습니다. (2 절)

- 2 절,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듯하시게 하리이다'
- 여기서 '받들어 모시게 한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테히로 소케네트'란 말로 그 뜻은 '간호하게 한다'는 의미. (참고: '소케네트'란 말은 '간호원, 혹은 여자 친구'란 뜻)
- 곧 쇠약해진 왕의 몸을 간호하고 그 몸을 따듯하게 만들기 위해 젊은 여자를 찾았다는 것!
- 참고로 이것은 당시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에 고대 의술자들이 권장했던 처방임!
 -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밤에 몸이 더 차가워짐으로 몸에 온기를 돌게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취하는 최고 처방이었음. (동서양 불문)
 - 곧 '다윗'의 품에 젊은 여인을 안겨준 것은 결코 성적만족을 취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의료행위로 보아야 함!!

3) '다윗'을 간호하기 위해 선택된 여인은 '수벰' 사람 '아비삭'이었습니다. (3-4 절)

- '수벰'은 나사렛에서 약 11.2Km 에 위치한 '잇사갈' 지파의 한 고을 / 오늘 날 '술람'지역
- 이곳은 '술람미'라고도 불리며, 미인들이 많기로 유명한 지역이었음.
- 당시 '아비삭'도 심히 아름다웠다고 기록! -> But! '다윗'은 그녀와 결코 동침하지 않았음!

2. 이때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5-10 절)

1)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 첫째, 당시 그가 왕자들의 서열상 일순위에 있었기 때문!
 - 첫째 아들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은 ‘다말’ 사건으로 인해 죽음.
 - 둘째 아들 ‘길르암’은 어렸을 때 병으로 죽었다고 추측됨. (역대상 3:2)
 - 곧 당시 ‘다윗’의 아들 중에서는 그가 제일 연장자였음.
- 둘째, 그의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했다는 것! -> 곧 백성들에게도 인기가 있었을 것!
- 셋째, 특히 그는 ‘다윗’의 책망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
 - > 이에 대한 두 가지 반대 해석!
 - ①. 그의 왕자로서의 삶이나 태도가 흠잡을 것 없이 좋았다는 것!
 - ②. ‘다윗’이 ‘아도니아’의 마음을 섬섬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의 삶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
- 중요한 것은 당시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신을 높여 왕이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것!!!
 - > 이는 곧 그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교만했다는 것을 의미!
 - > 또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는 생각하지 못했다 혹은 알았지만 무시 했다는 것!!
 - 이것은 곧 그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음을 의미!!

2)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특별히 서로 모의한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7-8 절)

-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이었음.
 - > ‘요압’은 ‘다윗’의 군대장관으로 이미 여러 차례 ‘다윗’의 명을 거역하며 불충한 사람
 - > ‘아비아달’은 ‘사울’의 칼을 피해 ‘다윗’에게 도망 온 날부터 ‘다윗’의 보호 아래 있었던 제사장! But ‘다윗’이 자신보다 제사장 ‘사독’을 귀하게 여기자 이를 시기하였음.
- 그런데 ‘다윗’의 충성스런 신하들은 결코 ‘아도니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
 - 제사장 ‘사독’, ‘브나야’, 선지자 ‘나단’, ‘시므이’, ‘레이’, ‘다윗’의 용사들
- 곧 평소 불평하고 시기하고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결국 악한 길로 들어서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평소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남을 높이는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

3) ‘아도니아’는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소헬렛’ 바위 곁에서 연회를 가졌습니다. (9-10 절)

- 9 절 주목하면, 이때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함!
- 참고로 학자들은 이것은 단순한 연회가 아닌 일종의 종교적 제사의 성격이 강하다고 해석!
 - 곧 ‘바위’는 ‘제단’, ‘양과 소와 송아지’는 ‘제물’ // 대제사장과 군대장관 + 유다 귀족
 - 또한 정치적 음모를 은폐하면서 서로 정신적 결속을 다지며 왕위를 확증하는 모임!!

- 이때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다윗’의 용사들과 ‘솔로몬’은 이 자리에서 제외시킴!
 - 저들은 일찍이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생각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 참고로 삼하 7:12 절,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 곧 ‘아도니아’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은 선지자 ‘나단’을 배제시킴으로써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뜻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반역행위를 실행한 것임!

3. 이 소식을 들은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기 위해 급히 움직였습니다. (11-30 절)

1)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기 위한 나단의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11-14 절)

- ①. 즉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밋세바’를 찾음!
- ②. ‘밋세바’가 모든 사실을 왕께 보고하도록 지혜롭게 지도
- ③. 자신은 그 다음에 왕에게 나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왕의 결단을 돕겠다고 계획!

2) ‘나단’의 지도를 받은 ‘밋세바’는 ‘다윗’에게 무엇이든 전하였나요? (15-21 절)

- ①.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겠다 약속한 일을 상기시킴.
- ②.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지금 ‘아도니아’가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대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전함.
- ③. 따라서 지금 온 백성이 왕을 주목하며 ‘다윗’의 뜻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함.
- ④. 만약 ‘다윗’이 죽은 뒤에는 자신과 ‘솔로몬’은 죄인이 되어 있을 것!

-> 곧 ‘밋세바’는 아들의 왕위만을 생각해 결코 감정적으로 앞서 분해하며 성급히 움직이지 않고, ‘나단’의 가르침대로 먼저 ‘다윗’이 받았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돕고, 그 다음 위급한 현 상황을 보고하며 신속하게 판단해 줄 것을 지혜롭게 부탁했다는 것!

3) 이때 선지자 ‘나단’도 ‘다윗’에게 나와 빠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2-27 절)

- ①. 한번도 자신에게 ‘다윗’이 ‘아도니아’가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 말하지 않았다고 전함!
- ②. 그러나 지금 ‘아도니아’를 비롯한 그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선포한 소식을 들었다고 전함!
- ③. 그리고는 이것이 ‘다윗’의 뜻인지를 물어 봄
- ④. 또한 만약 그것이 왕이 뜻이라면, 왜 자신에게는 알리지 않았고, 또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냐고 물었다는 것!

-> 곧 ‘나단’은 단순히 ‘아도니아’를 반역자로 몰아 고발하는 것으로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려 하지 않고, 먼저 ‘다윗’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것!!

4) 이에 ‘다윗’은 ‘나단’과 ‘밋세바’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솔로몬’이 오늘 왕이 될 것이라 맹세해 주었습니다. (28-30 절)

4.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브나야’에게 즉시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을 거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32-39 절)

- 1) ‘다윗’은 자신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고 ‘기혼’으로 내려가 즉위식을 거행하게 하였습니다.
 - 참고: ‘다윗’의 노새
 - 당시 이스라엘에는 말이 없었고, 왕과 왕자들만 노새를 타고, 일반인들은 나귀를 탔음.
 - 말은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애굽으로부터 수입되기 시작함.
 - 곧 ‘솔로몬’이 ‘다윗’의 노새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 백성들은 그가 ‘다윗’ 왕의 후계자임을 자연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는 곧 처음부터 백성들이 ‘아도니아’로 인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윗’의 뜻!.
 -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이 열린 ‘기혼’은 어떤 곳인가?
 - 예루살렘 성 바깥 동쪽에 위치한 ‘기드론’ 계곡 위쪽에 있는 샘
 - 이곳은 당시 예루살렘 성에 식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수원지였고,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충지였음!
 - 참고로 ‘히스기야’ 왕은 이곳에서부터 수로를 제작해 성 안에 실로암 저수지를 만듦.
- 2) ‘다윗’은 ‘기혼’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의 만세수를 외치게 하였습니다.
 -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부음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될 수 있음을 확인!
 - 참고로 만약 ‘아도니아’가 설령 솔로몬에 관한 계시를 몰랐고, 그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생각했다면, 제일 먼저 선지자 ‘나단’을 찾아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만 했음! ->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의 자세였을 것!!!
- 3) ‘다윗’은 ‘솔로몬’의 즉위식이 끝나는 데로 자신의 왕좌에 그를 앉히고, 자신을 대신해 유대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을 공포하게 하였습니다.
 - 단순히 ‘이스라엘의 통치자’라 말하지 않고 ‘유대와 이스라엘’을 따로 강조한 것은 결코 ‘아도니아’를 따르는 세력들이 ‘유대’를 앞세워 반역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애초에 ‘솔로몬’이 자신의 뒤를 잇는 진정한 통일왕국의 왕이 됨을 선포하게 한 것임!!
- 4) ‘브나야’는 이런 ‘다윗’의 명령을 받은 뒤, 모든 신하들을 대표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였습니다.

5. ‘아도니아’ 일행은 연회를 마칠 때까지 이런 ‘솔로몬’의 즉위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40-53 절)

- 1)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을 ‘아도니아’는 언제 알게 되었나요?
 - 41 절 ->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 > 곧 저들은 ‘솔로몬’의 즉위식이 이미 거행되어서 다 끝났을 때까지 스스로 승리감에 취해서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었다는 것!
- 2) ‘솔로몬’의 즉위 소식을 전하는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의 증언을 주목!
 - 솔로몬’이 왕이 된 것으로 인해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성읍이 진동하고 있다’고 전함!

- 이미 ‘솔로몬’은 ‘다윗’의 왕좌에 앉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자신보다 더 아름답게 높여주실 것을 기도하며 선포했다고 전함!
-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의 자리에 앉을 자를 세워주셨다고 ‘다윗’이 선포한 것을 전함!

-> 곧 ‘아도니아’는 스스로 교만하고 높아져서 직접 사람들을 모으고 왕이 되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있던 ‘솔로몬’을 자신의 계시와 뜻대로 세우시고, 그 이름을 높여주시며 ‘다윗’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

3) 이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나요? (49-53 절)

- 모두 다 놀라 도망하였다고 기록!!
- 심지어 ‘아도니아’ 본인도 제단 뿔을 잡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음!!
- 특히 51 절을 보면, ‘아도니아’는 제단 뿔을 잡고 자신을 ‘솔로몬’의 종이라 칭하며 ‘솔로몬’이 자신을 죽이지 않기를 맹세해 주길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

->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는 아무리 대단한 인간도 결국은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하심을 구하게 될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미리 깨달아야만 할 것!!

➤ 참고로 그럼 당시 ‘아도니아’는 왜 성막으로 달려가 제단 뿔을 잡고 있었을까?

- 우선 제단 뿔은 성소 안의 번제단의 4 모퉁이를 장식한 뿔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상징.
- 제사장은 희생 재물이 될 짐승을 이 제단 뿔에 묶어 놓기도 하고, 그 피를 뿔에 뿌렸음.
- 그런데 만약 부지 중 살인을 행한 자가 달려와 이 뿔을 잡으면, 그 동안은 결코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였음.
- 그래서 제단 뿔은 종종 범죄자의 도피처가 되기도 하였음. (출 21 장)
- 따라서 ‘아도니아’는 급히 제단으로 달려가 그 뿔을 잡으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하여 주시길 바라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

4)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은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52-53 절)

- 52 절 - 만일 그가 선한 사람이라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을 것이라 선언!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 앞에서? 혹은 누구에게?

- ‘솔로몬’은 그를 용서하고 조용히 집으로 돌려 보냄!

6. 오늘 내용을 보면서 새롭게 깨달거나 결단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